

전주시,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만든다

전주시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안전과 운행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교통약자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시내버스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영동고속도로 붕괴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연쇄 추돌사고 등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시는 시내버스 5개사와 2개조를 편성해 지난 23일과 28일 2차례에

시내버스 5개사 412대 차량 대상 안전점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45대 전수조사 추진

걸쳐 5개 시내버스 회사의 전체차량 412대를 대상으로 재생타이어 사용여부와 차량 부식상태,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및 비품관리 등 10개 항목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고, 차량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는 28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이지콜택시 42대와 장애인 셔틀버스 3대 등 현재 운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45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실내외 청결상태 △배차일지 및 운행일지 작성상태 △예약시스템 운영상태 △운전자 교육 실시상태 등이 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이지콜 운전원들의 안전운행과 고객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운전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꼼꼼히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내버스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콜 합동점검에 나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지콜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과 감동을 주는 이지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교통약자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현장을 누비며 감동을 주는 이지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운행상태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시내버스 부분과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과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양반선비마당' 탈춤 구경하세요

국립무형유산원 찾아가는 무형유산아카데미 풍자와 해학 또 하나의 세상을 보는 탈과 탈춤 아카데미가 28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화려한신국탈놀이 보존회가 '양반선비마당' 탈춤을 선보이고 있다.

전주시,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학교' 행사 개최

옛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전주시민들이 자연을 즐기고 가족, 연인과 추억을 만드는 가을철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시는 28일과 29일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구 쓰레기매립장)에서 어린이와 가족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학교' 행사를 개최한다.

'꽃과의 어울림, 자연놀이'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학교'에는 시민들이 허수아비와 코스모스와 꽃무릇, 국화 등의

가을꽃이 어우러진 꽃누리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번 행사에서 시는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자연생태 체험학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꽃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2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자연물 열매 팔찌 만들기, 와글와글 놀이, 트랙터 타고 꽃구경하기 등의 7가지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물감 물총으로 쓰고 물감으로 찍어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만드는 '우리

가 만드는 가을 동화나라', 소원 담아 연날리기, 캐리커처 등 5가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나물자만팀 7명과 전북 숲해설 전문가 협회 1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자연과 생태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지친 심신을 자연 속에서 회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생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시의 주요 생태문화화사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경비원 폭행 관리소장 입건

김제경찰서는 28일 아파트 경비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관리소장 전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42분께 김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김모(60)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양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아파트 관리소장 전씨는 경비원 김씨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자라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소장이 시킨 일을 경비원이 왜 안 하나"며 욕설과 함께 경비원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강수 前고창군수 1심서 징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금품제공 등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던 이강수 전 고창군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8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강수 전 고창군수와 함께 선거캠프 관계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이 전 군수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69)씨에게도 이 전 군수와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또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며 사건에 연루됐던 8명 역시 최소 벌금 300만원을 비롯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았다. /뉴시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담당 경찰 숨진 채 발견

지난 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50분께 박모(44)경위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박 경위는 이날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가족들에게 "괴롭다. 죽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스

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위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로 지난 8월26일 열린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가족과 지인들에게 "재심이 너무 힘들다. 죽어야 끝나 보인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과 주변 동료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어업용 면세유, 낚시어선 영업 사용 '덜미'

허위 수산물 거래내역서로 어업용 면세유를 타내 낚시어선 영업에 사용한 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불발했다.

2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영업활동에 사용한 낚시어선업자 이모(45세·남)씨 등 21명에 대해 사기 및 수산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항·포구 인근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뒤 마치 조업 중에 잡은 것

처럼 속여 수산물 거래증명서를 수첩에 제출하고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낚시어선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행법상 낚시어선도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활동과 120만원 상당의 수산물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면허 양식장 1ha를 1000만원에 구입한 뒤 손쉽게 낚시어선으로 등록하는 수법을 이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주시 '제2의 탄소소재 산업' 키운다

탄소융합기술원, 2018년까지 활성탄소 원천기술 개발 추진

전주시가 활성탄소 원천기술 선점을 통해 제2의 탄소소재 산업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28일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론회'를 열어(이하 활성탄소 사업)의 일환으로 GS칼텍스와 지리산한지, 클린사이언스, 불스원 등 도내 활성탄소기업체를 방문해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활성탄소는 목재, 갈탄, 아자껍질 등을 원료로 제조하는 소재로 무수한 미세기공과 흡착력을 가져 탈취제, 탈색제 및 용액의 정제 등에 이용된다.

활성탄소의 세계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까지 약 8조원으로 연평균 11%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현재 정수처리를 제외한 고급활성탄소는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36억원을 들여 활성탄소 원천기술개발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전주를 활성탄소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한 활성탄소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원은 이 사업을 통해 활성탄소

표면의 고기능성 처리기술과 오염물질 흡착기술 등 3종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개발된 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관련 탄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활성탄소 핵심기술이 개발되고, 핵심기술을 활용한 관련기업들과의 제품공동개발이 이뤄지면 대한민국 활성탄소 생태계가 전주를 중심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섬유에 이은 제2의 탄소소재 산업인 활성탄소 등 탄소산업 육성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도시인 전주의 위상도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활성탄소는 최근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소재로 앞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탄소산업 중심도시인 전주시는 활성탄소 원천기술 선점을 통한 국내 활성탄소 메카로 거듭나 탄소섬유에 이은 제2의 탄소소재 산업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